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족당과 호칭⑩

②척당戚黨
달리 척족戚族이라고도 합니다만 족당族黨에서 이는 친족親族의 족族과 같지 않아 당黨으로 구분해서 붙게 된 칭입니다. 그러니까 족당은 친족과 척당 둘로 갈리는 것입니다. 이 척당은 친족과 달리 혼인으로 해서 생기는 인척姻戚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척당에는 또 아버지 계통의 부당父黨, 어머니 계통의 모당母黨, 지아비 계통의 부당夫黨과 지어미 계통의 처당妻黨으로 네 갈래가 있습니다.

■부당父黨
부당은 아버지 계통의 여자가 출가하여 그 배우자가 되는 남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생한 자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증조고모부曾祖姑母夫
증조고모, 즉 증조부의 누이의 남편입니다. 옛적 조혼早婚과 중혼重婚 출산이 많던 시대에는 이런 인척 관계가 실재하였습니다. 칫수는 5촌이 되지만 상복喪服이 없습니다.

• 대고모부大姑母夫
할아버지의 누이인 대고모大姑母의 남편이고 칫수는 4촌이지만 상복이 없습니다. 대고모부터는 출가를 했어도 3월 시마緦麻의 상복이 있습니다만 그 배우자인 대고모부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무릇 고모부、이모부姨母夫、매부妹夫 등 부夫자가 붙은 척당에게는 상복이 없습니다.

• 고모부姑母夫
고모의 남편이고 칫수는 3촌입니다. 아버지의 친누이가 고모이고 그 지아비가 고모부이며 역시 고모부에게 상복이 없거니와, 아버지의 사촌누이는 당고모堂姑母, 그 배우자는 당고모부이고 아버지의 6촌누이이면 재종고모再從姑母, 재종고모부이고 8촌이면 삼종고모、부가 됩니다.

• 내종內從
고모의 자녀입니다. 내사촌內四寸 또는 고종姑從이라고도 합니다. 촌수는 4촌이고 내종、외종外從、이종姨從 형제간에는 시마緦麻 3월의 상복이 있습니다. 내종형、내종제、내종아우、내종누님、내종매、내종누이 등으로 흔히 불렀는데 요즘은 모두 ' 고종사촌姑從四寸 '이라고만 일컫고 있습니다. 아내의 내종제를 요즈음 ' 처고종사촌동생 '이라는 식으로 장황하게 칭하는데 이를 맞게 쓰면 내종처남內從妻男이나 고종처남姑從妻男이 됩니다.

• 내종질內從姪
내종의 자녀로서 남자는 내종질이고 여자는 내종질녀內從姪女입니다. 촌수는 5촌이 되지만 제도에서 벗어나 상복이 없습니다.

• 매부妹夫
누이의 남편으로서 친족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원래 매妹는 누이동생을 뜻합니다만 손위아래 없이 그냥 매부라 하고 4촌매부는 종매부從妹夫, 6촌매부는 재종매부再從妹夫라 합니다. 친매부와 나 사이를 남매간男妹間이라 하고 4촌、6촌으로 가면 종남매간、재종남매간으로 말합니다. 손위 매부는 형사兄事, 즉 형으로 섬기고 손아래 매부와는 연치로 따져 벗합니다. 손위라 하더라도 친매부가 아닌 종매、재종매부에게는 형사를 아니하고 연치로 따져 평교平交하였습니다. 근자에 손위 매부를 매형妹兄이나 자형姉兄으로, 손아래 매부를 매제妹弟라 하는데 이는 다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 생질甥姪
출가한 누이의 자녀로서 남자는 생질이고 여자는 생질녀이며 서로가 소공小功 5월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질녀가 출가하면 복이 없어집니다. 사촌누이의 자녀는 생당질甥堂姪, 6촌누이의 자녀는 생재종질甥再從姪이 되는데 복제服制가 없어서인지 따지는 일이 드뭅니다. 생질의 아내는 생질부甥姪婦이고 생질녀의 남편은 생질서甥姪壻입니다. 생질의 아들, 즉 누이의 손자녀부터는 호칭이 없습니다.

■모당母黨
어머니로 인하여 생긴 척당이니 어머니의 친정으로서 내게는 외가의 촌수입니다.

• 외증조부外曾祖父
어머니의 조부입니다. 그 할머니는 외증조모이고 상복이 없습니다.

• 외조부外祖父
어머니의 아버지이고 할머니는 외조모外祖母입니다.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 부르고 외왕부外王父、외왕모外王母라고 하며 죽으면 외왕고外王考、외왕비外王妣라 합니다. 이러한 외조부모의 상복喪服은 소공小功 5월입니다.
이상은 나의 외가이고, 나의 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陳外家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외조부는 진외증조부가 되고 아버지의 외사촌 남녀는 진외당숙陳外堂叔이나 진외당고모 등으로 됩니다.
한편 어머니의 외가는 외외가外外家가 되어 어머니의 외조부모는 외외증조부모가 되고 어머니의 외사촌은 외외당숙이 됩니다.

• 외숙外叔
어머니의 남자 형제로 외삼촌으로 많이 호칭합니다. ' 치고 보니 외삼촌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자에는 친삼촌에 비해 매우 소활하였습니다. 외숙부外叔父라 부르고 자칭은 내구內舅라고도 하며 남의 외숙을 높일 때는 위양장渭陽丈이라 합니다. 위양장이란 중국 위수渭水의 북안北岸에 있는 어른의 뜻인데, 춘추시대春秋時代 진강공秦康公이 외숙 진문공晋文公을 위수에서 전송하며 시를 지어 정의를 표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머니의 큰오빠는 큰외삼촌、큰외숙、외백숙外伯叔、외백부外伯父 등으로 부르며 외숙의 아내는 외숙모外叔母입니다. 외숙의 상복은 5월이고 외숙모는 3월입니다.

• 외당숙外堂叔
어머니의 사촌 형제이고 외종숙外從叔이라고도 하며 그 아내는 외당숙모、외종숙모입니다. 외재종숙、외삼종숙도 있으나 모두 상복이 없습니다.

• 이모姨母
어머니의 자매이며 그 남편은 이모부姨母夫입니다. 이모에게만 5월의 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촌자매는 종이모從姨母, 6촌 자매는 재종이모인데 모두 복이 없습니다.

• 외종外從
외숙의 자녀로서 표종表從이라고도 하며 칫수는 4촌이고 3월의 복이 있습니다. 형은 외종형、외사촌형、표형表兄이고 아우는 외종제、외사촌동생、표제입니다. 누이는 외종매外從妹、외사촌누이, 그 남편은 외종매부外從妹夫이며 외사촌형제의 아내는 외사촌형、계수兄季嫂나 외종형、계수입니다.

• 이종姨從
이모의 자녀로서 칫수는 4촌이고 서로 3월의 복이 있습니다. 이종형、이종누이、이종제、이종동생 등으로 호칭합니다.
상복은 서로가 입는 기간이 같은데 존비간尊卑間에는 그게 같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조부와 외손자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외손자와 출가 아니한 외손녀 및 외손부外孫婦가 5월복을 입지만 외조부모는 외손자녀 및 외손부를 위해 3월복을 입습니다.

• 이질姨姪
아내의 자매의 자녀이고 여자로서는 자기 자매의 자녀입니다. 아들은 그냥 이질이고 딸은 이질녀입니다. 이질녀의 남편은 이질서姨姪壻, 이질의 아내는 이질부姨姪婦입니다. 칫수는 3촌이고 복은 이모에게만 있어서 이모와 이질은 5월을, 이모가 이질부를 위해서는 3월복을 입으며, 이질녀가 출가했을 때에는 이모와의 복이 없어집니다.

弼雲齋

격려에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전주종친회(회장 權寧平)에서 10만원을, 12월 17일 경주청년회에서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5면에서계속

부터 있어온 오하묵 군단에서 반갑게 통합하여 일대 민족독립군단을 이루자고 성심껏 권고했음에도 군사의 많은 것을 자대自大스럽게 믿고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개전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응전하여 순량한 병사대중의 인명 손실을 상호간 가져왔으므로 적어도 박일리야、홍범도、이청천 등 간부급 인물은 극형에 처하고 기타 중간급 인물에겐 적당한 형을 가하고 하급 병사는 개전이 확신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유감스럽고 준엄한 분위기였다. 이에 하구 김선생 및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 기타 동행은 극력 동족상잔전의 불행함과, 동족을 문책함에 있어서는 언제든 도량이 관대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지방 동포들의 찬동을 얻음과 동시에 검찰측의 무조건적인 동의도 얻게 되어 기소취소에 의한 무죄로 귀결케 했다.

사회주의 계열의 기록을 좇고 있는 이종률의 흑하사변에 대한 인식은 정설과 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이르쿠츠크의 감옥에 수감되어 이청천 등 휘하의 독립군 6백 내지 9백여명이 그곳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아 처리된 것이 사실인데 이때 동방약소민족대회를 위해 이곳에 와 모인 우리나라 대표들이 그들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도 사실이었다. 56인 민족대표는 한목소리로 그곳 사법당국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였을 것이고 이들 민족대표에게 우호적인 레닌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이청천 등을 석방케 하였을 것이다.

모스크바에 가서 권애라의 평생반려가 되는 하구 김시현金始顯은 이때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것이 1921년 12월로 고증되고 있다. 김시현은 1921년 9월에 국내에서 출감하자 바로 10월에 서울에서 이 대회 참가를 위한 출국 준비를 하였다. 김시현의 일은 국내 대표 20인을 선정하고 그 여비를 조달하여 그 20인 대표가 압록강 국경을 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김시현은 일제의 경기도경 소속 경부警部 황옥黃鈺의 힘을 빌었다. 황옥은 호가 만동晩東이고 경북 상주尙州 출신으로 비밀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김시현이 잘 아는 사이였다. 황옥은 김시현의 부탁을 받은 며칠 후 신의주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무기명 여행권旅行券 12장을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 원적原籍、주소 직업、연령、성명 등을 기입하여 관헌에 제시하면 신의주나 안동현安東縣에서 무사통과되는 여행권은 당시 사정으로 한 장을 얻은 것도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았다. 김시현은 긴밀히 선정한 20명 대표중 12명에게는 이 여행권을 주어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어 만주로 가게 하고 본인을 포함한 8인은 신의주까지는 같이 가서 거기에서 며칠 체류하며 온갖 계책을 강구해서 국경을 탈출해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느라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엄동설한 12월에 동토의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독립군 피포자들의 재판이 끝나자 일행은 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배려한 특별열차편으로 대륙을 횡단하여 1922년 1월 7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던 것이다.